

圖書館 文化의

전환점을 마련하자

歷史의 흐름 속에는 때때로 機會가 있으며 새 歷史를 創造해 내기 위한 時運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歷史創造의 氣運이 무르익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態勢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또 스스로 새로운 歷史를 創造하겠다는 意慾이 없다면 좋은 機會를 잃게 될 것이다. 또 이러한 機會는 항상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

우리는 이제 도서관 文化의 번영된 꽃을 피울 수 있는, 도서관의 새로운 역사를 創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였다.

社會로 부터 認定받지 못하고, 항상 그늘에서 民族文化의 傳承이라는 벅찬 使命을 갖고 묵묵히 일해가는 圖書館人들에게, 圖書館의 重要性이야말로 모든 文化發展에 있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 社會에 認識시킬 수 있는 機會가 마련된 것 같다.

5월 31일부터 1주일간 열리는 國際圖書館協會聯盟大會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서관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하는 집념의 결실로 마련된 것으로 우리 도서관계가 앞으로는 다시 맞기 어려운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 된다. 우리 圖書館界가 앞으로 이런 大規模 國際會議를 개최할 기회가 마련되기도 어려울 것이며, 또 世界 各國에 우리의 圖書館 文化를 보여주기도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간의 圖書館界의 活動을 反省하고 새로운 圖書館 文化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다 先驅의인 圖書館을 이룩하여야 하겠다.

圖書館人들이 社會적으로 安定될 수 있는 法的인 보장의 문제라든가, 圖書館은 冊이나 보관하는 곳이라는 社會의 固定觀念의 不識이라든가, 對內的으로는 機械化되어가는 圖書館의 業務處理라든가, 西歐化되어가는 圖書館 運營에서 眞正한 韓國的인 圖書館 文化를 이룩하여야 한다는, 그래서 우리는 社會文化發展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民族文化의 遺産을 後孫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하는 問題를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모처럼 우리가 개최하는 國際會議가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있게 이루어 지도록 전체 圖書館人들이 참여하여 우리의 응집력을 社會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 국제회의는 一部 團體 또는 個人을 위해 개최되는 것이 아니고 圖書館 文化의 振興이라는 歷史的인 課題아래 개최되는 것이므로 우리 모두는 새로운 歷史를 창조한다는 보다 큰 使命感을 갖고 이 회의가 보람있게 끝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힘을 과시해야 할 것이다.